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주치의

서울의료원 플러스+

2015.03
vol.27

발행인 김민기

편집인 김현숙

기획·편집 홍보팀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전화 02-2276-7000

홈페이지 www.seoulmc.or.kr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MOU 체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과 서울시 장애인체육회(회장 박원순)는 지난 2월 6일(금)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건강증진 및 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의료원 김민기 의료원장, 이인덕 간호부장,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 박은수 부회장, 곽해곤 사무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서울시내 개최 체육행사 의료진 파견 △계약처 전용 창구 운영 △진료편의 제공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홍보지원 등 인적 및 물적 자원 상호교류를 목표로 향후 긴밀한 협력 관계 발전 등을 다짐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새 병원 이전 이후 이용환자 증가 등 많은 발전을 해왔으며 더 나아가 병원 이용에 있어 보다 나은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의 병원이용경험을 공유하고 병원환경에 접목시켜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림돌 없는(Barrier Free) 병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과 안은희 간호사, 서울의료원 최초 유전상담사 자격 획득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체계화된 상담 제공



외과 안은희 간호사는 지난 2월 7일(토) 서울의료원 최초로 한국유방암학회(회장 윤정환, 이사장 송병주)가 시행하는 제4회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 자격을 획득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 암 발생 2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7%이다.

한국유방암학회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유전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유전상담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는 총 53명이 전문 유전상담사(서울의료원 포함)로 등록되어 있다.

2010년부터 외과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유전상담사 자격을 획득한 안은희 간호사는 유전상담교육과 자격인정시험을 거쳐 유전성 유방암으로 서울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체계화된 상담을 제공해줄 수 있게 되었다.

안은희 간호사는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주시고 자랑스러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특히 외과 조동희 과장님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면서 “이제 유전상담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으니 차근차근 유방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환자들에게 체계화된 상담을 제공해줌으로써 도움이 되는 유전상담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초과학, 의생명 연구교실’로 미래과학자 육성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중랑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과학, 의생명 연구교실’을 운영해 미래과학자 육성에 나섰다. 서울의료원은 지난 2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중랑구 소재 학교장으로부터 과학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을 추천 받아 선발된 10명의 학생들을 초대해 생명과학, 의학, 역학과 관련된 연구 설계, 논문검색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심화연구교실에 참여할 우수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우수인재에게는 심화연구교실을 통해 학회 발표, 논문실현 및 작성 등을 지원한다.

웃는 환자, 안전한 서울의료원

병원 내 안전문화 형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제 1차 환자안전라운딩 실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2월 13일(금) 원내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병원환경을 만들고자 김민기 의료원장, 송관영 의무부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안전라운딩을 시행했다. 2014년 보고된 원내 환자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40.3%(환자안전사고 중 2위)가 낙상사고로서 낙상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낙상 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날 라운딩에서는 낙상 위해요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 낙상예방 포스터 배포를 통해 낙상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환자안전라운딩 이후 낙상 위해요인이 있으나 안내가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낙상주의 안내문을 확대 배포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환자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울의료원 환자안전라운딩은 201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간호부 '겹겹안전' 행사 실시



간호부(간호부장 이인덕)는 지난 2월 12일(목) 병원 내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겹겹안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주사제의 안전한 투약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환자가 안심하고 주사처치를 받을 수 있는 안심병원이 되고

자 마련되었다. 이인덕 간호부장, 이진자 병동간호팀장, 조성자 간호교육팀장 및 각 부서 파트장이 직접 병동을 찾아가 병동간호사 뿐만 아니라 실습학생에게 주사투약방법을 직접 실연하여 환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아울러 간호부 안전관리위원회는 향후 부서별 점검을 통하여 시상,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인덕 간호부장은 "병원 내에서는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매우 많다."며 "이번 주사 투약 방법 교육을 통해 간호사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환자에게 질 높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랑문화원 동그라미 연주단, 서울의료원서 힐링공연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2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원내 1층 로비에서 중랑문화원 '동그라미 연주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했다.

발달장애아와 다문화아동, 비장애아동들로 구성된 '동그라미 연주단'은 병원 환우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플루트와 중창연주를 선보이며 듣는 이에게 감동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병마로 지쳐있는 환우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환우보호자 및 지역주민에게 잠시라도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해 드린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2015년 신규 인턴 오리엔테이션 실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2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3일간 2015년 인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2015년도 신규 인턴 2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임상현장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규 인턴들이 복무 시 필요한 각종 직무 교육을 받았다.

주요 교육내용은 병원 규정, 의무기록, 감염관리, 친절 등이며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응대할 때 필수적인 태도를 비롯해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약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받았다. 새내기 인턴은 오는 3월 1일(일)부터 각 진료부서에 투입돼 의사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추기 어렵지만,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흑자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고 합리적인 진료비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9개월동안 기획조정실의 수장으로 지낸 송관영 기획조정실장의 말이다. 그가 지난 2월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으로 임명됐다.

Q. 먼저 의무부원장 취임을 축하 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서울의료원은 1996년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첫 직장입니다. 한 곳에서 20여 년간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역할 뿐만 아니라 병원경영에 참여하는 교육 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맡은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 병원 이전 후 많은 부침과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였고 환자안심병원 운영, 의료기관 인증획득 등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여 신내동에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전 4년차인 지금, 서울의료원은 더 큰 발전을 위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무부원장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울의료원은 ‘내 집’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여 병원 발전에 기여하는 의무부원장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송관영 의무부원장 취임

Q. 평소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A.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과 공유가 없이 잘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해와 내분이 생기지 않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스킨십’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의무부원장이 될 것입니다.

Q.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의료원 경영에 임하실 것인지요?

A. 국내 저수가정책, 선택진료비 최소화 등 어려운 의료 환경으로 공공병원은 물론 민간 대형병원도 적자로 인한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민간 의료기관과 달리 환자들에게 낮은 진료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들에게도 의료혜택을

주는 등 공공의료를 행하기 때문에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흑자 기조로 이끄는 데 기여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서 서울의료원이란?

A. 내 인생에서 서울의료원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가족’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가정의 일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향후 바람이 있다면 서울의료원 발전에 기여한 전, 현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과의 관계의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절직원 · 모범직원을 소개합니다”

응급의료센터 홍현주 간호사



친절직원

친절직원이 됐다는 전화를 받고 기쁘기도 했지만, 매우 어리둥절했습니다. ‘과연 제가 친절직원에 뽑힐 만큼 환자분들께 친절하게 응대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보다

더 친절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친절직원으로 뽑아주신 만큼 앞으로 바쁘더라도 환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응대하는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람과 긍지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온 젊은 환자를 심폐소생술 및 저체온요법으로 응급처치하고 적극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퇴원 후 환자분이 응급센터에 감사인사를 위해 다시 방문하셨을 때 최고의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82병동 고애진 간호사



친절직원

2015년 새해 목표 중 하나가 ‘친절직원으로 뽑혀서 상을 받아보자.’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벌써 이렇게 상을 주시는 것은 2015년 한 해를 언제 어디서나 친절환 직원으로 비취지게끔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이라 여기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친절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의학과 병동 근무 특성상 같은 환자,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진행하십니다. 다른 병원을 거쳐 다시 입원한 환자, 보호자 분들이 서울의료원의 시설과 간호사의 친절함을 칭찬해주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과 긍지

재활의학과 병동 근무 특성상 같은 환자,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진행하십니다. 다른 병원을 거쳐 다시 입원한 환자, 보호자 분들이 서울의료원의 시설과 간호사의 친절함을 칭찬해주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소아청소년과 김현숙 과장



모범직원

앞으로도 좀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여기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가짐

제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

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소아들은 성인들보다 훨씬 연약하고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어린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순수함은 항상 저에게 활력이 됩니다. 항상 아이들 및 보호자분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생분만실 김순행 간호사



모범직원

그 동안 함께 노력한 신생분만실 가족들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계속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음가짐

우리는 누구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태어납니다. 분만실에 근무하는 조산사인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든든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반자로, 또한 신뢰 받는 조력자로서 부부가 엄마, 아빠라는 이름으로 탄생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조분옥 임상병리사



모범직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우선 추천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의미의 채찍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가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글귀를 본적이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차근차근 저의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순간마다 집중하며 차근히 해나가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환자권리교실 ‘토마토’ 개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원장 김경일)은 지난 2월 26일 (목) 오후 2시부터 약 70분 동안 원내 지하 1층 강당에서 환자권리교실 ‘토마토(토크로 마주하는 환자권리 토크)’를 개최했다. 환자권리교실 ‘토마토’는 서울특별시에서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각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현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하 동부병원) 김경일 원장, 양명숙

시민위원회 위원장, 서영석 간호사, 박수연 사회복지사,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조경애 위원, 패널로 참석해 환자, 병원종사자 및 시민들과 함께 환자 권리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번 토크주제는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콜센터 상담문의 사례였던 ‘독거노인 나홀로 병원에 입원하기’와 의료진·환자 대상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료진이 좋아하는 환자·환자가 좋아하는 의료진’이었다. 이에 대해 패널과 환자·시민들 간의 열띤 대화의 장이 펼쳐졌으며, 이후, ‘원장님! 할 말 있어요’ 코너를 통해 여러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동부병원 관계자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들을 서로 소통하며 유쾌하게 풀어나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환자·시민들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사랑회, 다음카카오와 속마음 버스 사전 업무협약 체결



다사랑회는 지난 2월 24일(화) (주)다음카카오와 속마음 버스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실무책임자급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월 체결예정인 다음카카오와 서울의료원, 다사랑회의 삼자간 포괄적 업무협약에 앞서 이루어지는 사전협약으로 삼자협약 체결 이전에 서울의료원의 ‘속마음 버스’ 운영사업 런칭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약이다. ‘속마음 버스’는 지난해 3월 서울시와 다음카카오가 함께 출범시킨 서울시민힐링 사업으로 가족이나 친구 동료, 연인 등의 관계에서 생긴 오해와 갈등을 ‘속마음 버스’에 탑승하여 정해진 과정에 의해 풀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말 까지 모두 1,100여명이 이용해 많은 호응을 이끌어낸 마음치유 프로그램으로,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전문화를 위해 3월부터 서울의료원이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다사랑회는 다음카카오와 협력해 서울의료원의 ‘속마음 버스’ 운영사업 런칭을 안정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서울광장 展, 70년의 이야기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서울광장은 시민들의 회로애락과 역사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서울시민은 해방을 맞이했고, 전쟁을 겪었으며, 4.19혁명과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습니다.

2002 한일월드컵 때에는 거리응원의 중심지로 서울광장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휴식과 문화, 그리고 참여를 향유하는 시민 중심의 서울광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과 함께해 온 서울광장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록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전시명 「서울광장 展」

▶▶▶ 내 용

8.15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서울광장(시청앞) 일대 관련 현대사 주요사건, 경관변천, 시민 인터뷰 등 다양한 시각 기록물을 전시

▶▶▶ 기 간

2015년 2월 12일(목) ~ 4월 30일(목)

▶▶▶ 시 간

화~금 09:00~21:00, 토~일 09:00~18:00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장 소

서울도서관 1~5층

▶▶▶ 문 의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02-2133-5596, 5695, 5594), <http://opengov.seoul.go.kr>

※ 전시기간 동안 시민들의 서울광장 관련 기록을 기증받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02.01 구범희 기획경영팀	02.01 심영섭 건강증진센터	02.01 윤루비 건강증진센터
02.01 이덕주 내과	02.01 김진아 병동간호팀	02.01 서유리 병동간호팀
02.01 권옥주 시설관리팀	02.01 김명자 시설관리팀	02.01 김미환 시설관리팀
02.01 김숙희 시설관리팀	02.01 김영숙 시설관리팀	02.01 이선민 시설관리팀
02.01 신삼순 시설관리팀	02.01 정영신 시설관리팀	02.01 신승열 응급센터
02.01 표창해 응급센터	02.01 장지연 영상의학과	02.01 김선화 특수간호팀
02.03 남종우 원무팀	02.04 강연호 건강증진센터	02.04 박혜지 건강증진센터
02.04 정다운 건강증진센터	02.04 홍은미 공공의료팀	02.09 나혜원 건강증진센터
02.11 이정은 재활의학센터	02.23 김현섭 영상의학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02.01 양순재 임원	02.03 김주영1 교육연구부	02.03 이소정희 시설관리팀
02.05 한창국 시설관리팀	02.11 이수정 병동간호팀	02.13 김영지1 외래간호팀
02.17 고민정 보험심사팀	02.22 안지예 강남분원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02.28 박주혜 진단검사의학과	02.28 안보람 치과
-------------------	--------------

